

#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을 위한 낙농가들의 하나됨을 촉구합니다



김순영  
충북도지회장

지난 6월 1일 우유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통일우유보내기운동 캠페인 발대식에 참여 한바 있습니다. 티 없이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7공주들의 우유송을 들으며 흐뭇한 마음에 앞서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의를 가득 매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보이지만 정작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낙농인들은 낮 익은 몇몇 낙농지도자를 제외하고는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행사가 기준원유량 상향을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라도 이랬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이야 말로 우유소비 촉진운동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충분한 행사 홍보에 아쉬움도 있겠지만 낙농인도 스스로 동참하고 현재의 원유과잉 상태를 함께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남의 탓만 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는 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남이 내대신 다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살 때 우리 낙농인은 무궁한 잠재력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 및 온 국민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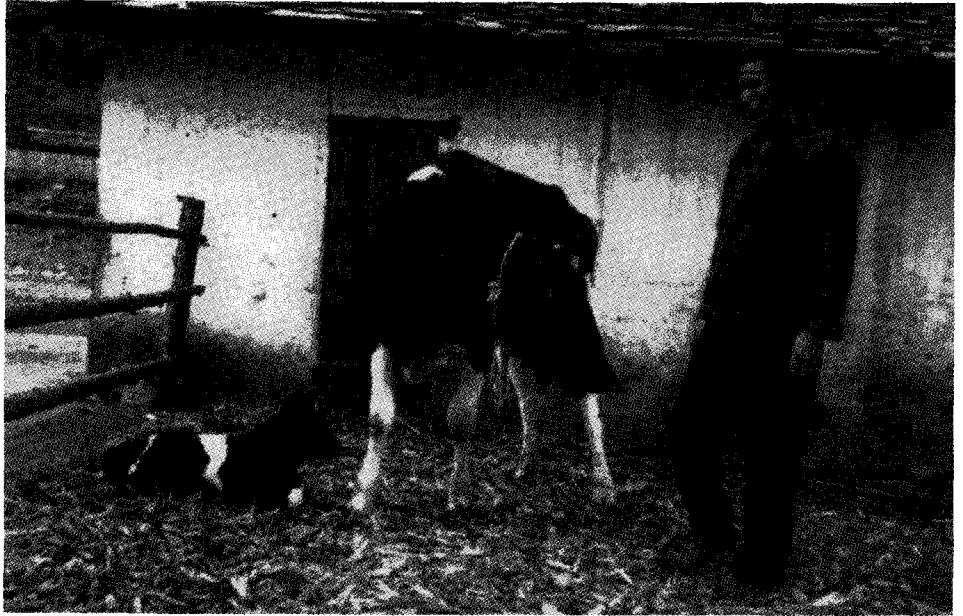
께 우유소비 및 통일우유보내기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첩경입니다.

간혹 언론 및 TV매체를 통해 비쳐지는 북한의 실상을 보며 문득 5~60년대 초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

이 몽클 하곤 합니다. 굶주림에 엄마 젖이 모자라 보리암죽으로 젖을 대신해야만 했고 술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 술에 취해 아무대서나 자야만 했고 소나무 껍질을 핥으며 영양을 보충해야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통일우유보내기 운동".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그 의미에 협회가 본 운동에 앞장 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국민건강을 책임져왔던 우유가 소비가 안된다는 이유로 생산을 줄여야 하는 우리들의 처지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우유로 북한에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위해 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렇듯 협회가 앞장서서 통일우유보내기운동을 한다니 낙농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국의 낙농인은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우리 낙농



인이 십시일반 함께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도와 줄때만 바라지 말고 나도 남을 위해 돕는 마음을 연다면 언젠가 마음의 양식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식생활에 허덕이는 지금은 철조망에 가로막혀 오갈 수 없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의 하얀 마음을 먹고 자란 북한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 세계 속에서 으뜸된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가만히 상상해보면 흐뭇하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농인 스스로의 노력과 봉사정신을 보인다면 온 국민이 감동하여 함께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

지금은 철조망에 가로막혀 오갈 수 없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의 하얀 마음을 먹고 자란 북한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 세계 속에서 으뜸된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국의 낙농인 모두가 통일우유보내기운동에 다함께 동참하여 오는 8월 15일 광복 60주년이 정말로 뜻있고 감명 깊은 날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부도 제2의 식량인 우유를 북한에 보내어 국내의 우유수급에도 일조하고 북한과의 우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온 국민이 상생의 길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끝으로 이번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에 적극 앞장서는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여기에 동참한 각계각층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확고한 정책개발을 촉구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젖소는 모성과 같습니다. 우유는 제2의 모유입니다. 우유를 사랑합니다.